

# ‘조진웅 나락쇼’ 멈춰야



정치평론가 이석현 씨가 최근 배우 조진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더 이상 누군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야만적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캔슬 컬처(cancel culture·나락 보내기 문화)’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평론가는 8일 김용민TV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문화계 이슈를 넘어 진영 간 전쟁 양상으로 비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누구를 얼마나 ‘나락’에 보내야 속이 시원한가…기준 자체가 없다”**

이석현 평론가는 조진웅 씨의 미성년기 소년원 처분까지 다시 끌어올려 공격하는 상황을 두고,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폭로→나락’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도대체 어느 정도 나락을 가야 용서가 된다는 기준 자체가 없다”며 “정치인처럼 말은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를 징벌할 구체적 장치가 없어 논쟁이 더 과열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피해자의 감정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영구적 퇴장’을 요구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며 “근대 사법 체계는 사적 보복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나락쇼의 사회적 결과는 ‘숨막힘·형벌주의·뻔뻔한 사람들만 남는 정치”**

이 평론가는 끝없는 ‘나락쇼’가 초래할 사회적 결과를 심각하게 경고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강화되면 숨 막히는 사회가 되고,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아닌 떠밀린 형식적 사과만 남는다”며 “운 좋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물러나거나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의 악영향을 지적하며 “결국 전광훈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만 버티고, 노무현·노회찬처럼 도덕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떠나게 된다”며 “그 결과 더 나쁜 정치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일과 생계는 분리해야…연좌제 부활 막아야 한다”**

이 평론가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이 과거를 근거로 한 ‘연좌제적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의 가족이 저지른 잘못까지 정치인 본인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버지가 권력을 이용해 개입했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톨 쉬어야 한다”며 최근 여야 정치인 가족 이슈에 대한 과잉 공격도 비판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두 번째 기회라는 원칙을 다시 사회적 합의로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의 티끌을 끝없이 잡아내는 무균실적 윤리 사회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번 조진웅 논란, 나락 문화 끝을 마지막 기회 될 수 있다”

인터뷰 말미에서 이 평론가는 “이번 사태가 ‘캔슬 전쟁’을 끝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진웅에게 보여준 태도, 소년 시절의 과오와 현재의 생계를 분리해 바라보는 접근을 앞으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이 기준만 합의되면 더는 이런 문제로 사회가 갈라질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년 12월 14일  
통권 13권 50호  
대림절 3주일

2025년 뱅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뱅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양미혜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뱅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려고 한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요한이 전하는 반가운 소식 13:34 (복한 성경)

# 주일에배순서

## 찬양

인도 오광석 전도사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윤 집사·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 사회 최한원 교우

징울림 Slet prayer *		정방남 원로
신앙고백 Creed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Hymn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다함께
기도 Prayer		이종원 집사
독서 Bible reading	누가복음 19:6~10	사회자
설교 Sermon	잃은 사람 찾아 오신 예수님	김용민 목사
광고 News		사회자
파송곡 Closing Song *	교회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		김용민 목사

##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복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 성경 누가복음 19장

19:6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19:7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19: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19: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9:10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셨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였으며, 심지어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착복하는 경우가 많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자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 ■ 오늘 설교 요약

대림절 셋째 주의 기쁨은 분위기나 감정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 여전히 세상은 거칠고, 사람들은 상처받고, 누군가는 돌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 오고 계시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재력과 권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사람은 있었지만 친구는 없었고, 성공은 있었지만 존엄은 없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림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삭개오는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 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신호였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변할 가능성을 보고 다가가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셨기에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고 선언하셨다. 이 조건 없는 친근함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다. 그의 급진적인 나눔은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본 삶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는 손해를 봐도 존엄을 잃지 않는 얼굴, 이미 용서받은 사람의 자유를 보였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돌을

던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다수의 편이 아니라, 돌을 맞은 한 사람 곁에서 계신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사람을 부수며 정의를 세우지 않으신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기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기쁨이다.

# “너는 구원받았어 / 안 받았어”의 폭력



“You are saved, you are not saved(넌 구원받았어, 넌 구원받지 못했어)”라는 단순하지만 폭력적인 구원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나와 내내는 평균 연령 60대 이상의 신자들과 함께한 독서모임을 통해, 전쟁 이후 영국 교회 문화와 신앙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된다. 특히 많은 참석자들이 어린 시절 부모 세대로부터 “구원받았다/못 받았다”는 판단적 언어를 듣고 자랐다는 공통의 기억을 나눈다.

이러한 구원관은 1930~1940년대 영국의 시대적 배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전쟁 이후 종말론적 분위기,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교회 문화, 근본주의의 확산 속에서 믿음 고백과 교회 출석 여부가 구원의 기준처럼 작동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른 이들은 인생의 긴 여정을 통과하며, 구원이란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인간은 타인의 내면을 알 수 없기에,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성찰에 이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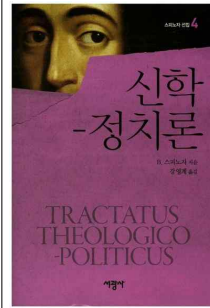
글은 이어 기독교 역사 속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의 긴장을 조망한다. 중세 교회는 행위와 교회 제도를 통해 구원이 매개된다고 가르치며 교권을 강화했고, 이는 정치적·경제적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 종교 개혁은 이러한 교권주의에 맞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회복했지만, 칭의가 강조되는 과정에서 성화가 분리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 결과 구원은 삶의 여정이 아닌,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적 사건으로 단순화되었다.

이러한 단순화된 구원관은 제국주의 확장과 결합해 선교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전달하기 쉬운 메시지가 되었지만, 동시에 억압과 차별을 가리는 종교적 언어가 되었다. 이후 자유주의 신학은 윤리와 책임을 회복하려 했으나 한계를 드러냈다.

이성의 역할을 극대화했던 자유주의 신학도 식민지 탄압과 분쟁,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인간은 잔인했고,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고통 앞에서 인간성은 붕괴됐다. 이후 등장한 근본주의는 다시 종교개혁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 과거로의 회귀였다.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계시, 도덕보다 말씀, 실천보다 믿음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넌 구원받았고, 넌 구원받지 못했어”라는, 영국 내에서 팽배해 있던 구원관의 형성 과정에는,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를 넘나들었던, 얽히고 설킨 복잡한 기독교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 오제홍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에서 박사과정 (평화나무 ‘독파민’ 연재 내용 요약)

## 김목사와 책읽기 스피노자의 ‘신(神) 정치론’



현대 한국 개신교회가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할 핵심은 “신앙이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확장하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복종을 통해 권력화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종교의 본래 목적을 초월적 지식의 독점이나 교리적 정합성에 두지 않고, 정의와 사

랑의 실천, 곧 공동선에 기여하는 윤리적 삶에 둡니다.

그는 성서를 절대적 명령집이나 과학 교과서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성경을 역사적·언어적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개신교회에 만연한 문자주의·무오류설 중심의 신앙 태도는 신앙을 살아 있는 윤리적 실천이 아니라, 비판 불가능한 교리 체계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스피노자는 미신이 인간의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종교 권력이 이를 활용해 사람들을 통제할 때 신앙은 해방이 아니라 억압의 도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한국 교회에서 반복되는 종말론적 공포 조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담론, ‘영적 전쟁’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은 신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며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킵니다. 이는 신앙을 통해 인간을 성숙하게 하기보다, 감정적 동원과 집단적 동일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신정치론’의 비판 대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서도 스피노자의 통찰은 중요하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했지만, 종교가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시민의 사유와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합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자와 내부 비판자를 배제·낙인찍는 현실은 신앙을 공적 윤리의 자원으로 만들기보다 이념적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신앙은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공존할 수 있는 자유의 토대 위에 서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부 구조 역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위, 불투명한 재정 운영, 성과 권력의 남용, 목회자를 비판 불가능한 존재로 신성화하는 문화는 종교 권력의 폐해를 반복합니다. 스피노자가 강조한 것은 복종을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성과 자유를 통해 자발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신정치론’은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에 묻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더 자유롭게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순응하도록 길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것이 교회의 갱신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룸 마태복음 5:21~26 먼저 해야 할 일 오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메디피아공간대어 느헤미야서 6:10~14 정도를 걷는 자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일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부르신 곳에서
본문	욥기 26장
설교	욥의 대답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출애굽기 17장 바위에서 물이 솟다
화	출애굽기 18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수	사무엘상 12:16~25 든든한 지도자
목	마태복음 7:21~29 반석 위에 지은 집
금	마태복음 8:1~13 말씀을 실천하시는 예수님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삼성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마을버스 삼성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이제 두 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좋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다, 이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이니 예수도 문제있는 존재일 거다, 이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 교회소식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라반 입고 교회학교 용도의 카라반(‘유레카’)이 입고 되었습니다. 전 과정 추진한 오광석·최새론 전도사의 수고가 컸습니다.

26일 평화나무 후원행사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금) 오후 4시부터 사단법인 평화나무 후원행사가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와 함께 김성희 최혁진 의원, 민동기 기자, 박영식 앵커 등이 출연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합성가대 연습 오늘 오후 3시에 연합성가대 모임이 생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가길 10, 상계동)

**그 외 연말 일정**

- 12. 24 수요일예배 겸 성탄절 전야 모임
- 12. 25 (오전 예배 없음) 오후 연합성가대 칸타타
- 12. 31 새해 축복 기도(10시) 및 송구영신예배(11시)

새해 갱신 등록 안내 기존 교인의 갱신 등록 절차가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교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링크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일 세례식 신청 받습니다 벙커1교회 세례교인이 되고자 하는 교우는 오광석 전도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이임 최새론 전도사 (1월 11일까지) · 오광석 전도사 (2월 22일까지) 두 분의 전도사가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 수고하고 교우들과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두 분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12월 교회 십일조	12월 안내	지난주 헌금액
교회개혁실천연대	1남교우회	2,271,000원